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금융지원

### 전북은행, 신속 지원 위해 전북신보에 직원 4명 우선 배치 등 협업 나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19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협업에 나섰다.

전북은행의 직원파견은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영애로자금 대출상담 문의가 폭주하면서, 지역신보 업무가 지연돼 실제 대출까지 1~2개월 가량 소요되어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유

동성 지원에 어려움이 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17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자금 신청이 증가하면서 상담과 보증서 발급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원인력은 보증상담, 서류접수, 보증등록 등 업무 지원을 담당해 보증서 발급 시간이 단축된다.

또, 신용보증재단과 은행 영업점

을 매칭해 상담 대행은 물론,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파견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이 파견되는 만큼 재단의 업무량 경감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지원도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

접지원 또는 유관기관 협조 요청을 통한 피해구제 및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대출상품'(한도 5조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보증대출상품'(한도 2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대출'(한도 5,000억원)의 신규지원 및 만기유예 등을 통해 4월 16일 기준 3,087건, 2,698억 원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지난 17~19일까지 3일간 농협하나로마트(전주 및 수도권 6개점)에서 김제광활 햇감자 판매전을 열었다.

## 'NH농협은행 보이스포싱 지킴이'

### 고창군지부 김덕규 과장, 경찰로부터 표창장 수여 받아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 김덕규 과장이 보이스포싱 금융사기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7일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로부터 표창장 수여와 함께 시민경찰로 위촉됐다.

김 과장은 지난 6일 오전 11시경 50대 고객이 농협은행을 방문해 700만원의 자금인출을 요청하자 자금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머뭇거리는 고객의 행동에 보이스포싱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여 즉시 고객에 대해 보이스포싱에 대한 안내와 112



신고를 통해, 보이스포싱 피해예방과 경찰서가 인출책을 포함한 4명의 범인을 검거(3명 입건, 1명 구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김덕규 과장은 지난 2월에도 보이스포싱을 예방해 고창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포싱 지킴이"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다.

진기영 지부장은 "김덕규 과장이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명감에 임해 침착하고 현명한 대처로 보이스포싱 범죄예방에 큰 공로를 세웠다"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금융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국내산 저장 풀사료 소비 확대 농진청 '풀사료 생산 힘써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산 저장 풀사료의 소비 확대를 위해 불철저 수분 풀사료 생산에 힘써 줄 것을 지난 17일 당부했다.

축산농가에서는 수분 함량이 일정하고 품질이 좋은 풀사료를 선호하며, 젓소, 한우 등 반추가축의 먹이로 활용한다.

올해 겨울철 사료작물은 1월 최저 평균기온(-1.1°C)이 평년(-5.7°C) 대비 4.6°C 높았고, 감수량도 적정해 생육상태가 좋은 편이다.

따라서 사료작물 생산량도 지난해 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수확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확에 필요한 예취기(풀베는 기계), 컨디셔너, 반전기(뒤집는 기계), 끈포기 등 장비를 점검하고 저장할 때 쓸 네트(그물 망), 비닐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 국내산 저장 풀사료는 2016년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도입한 이후 평균 수분 함량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품질도 향상되고 있다. 이전 국내에서 생산한 저장 풀사료는 수분 함량이 65% 내외인 사일리지(담근 먹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초나 헤일리지 등 저 수분 풀사료 비중이 높아졌다.

풀사료 평균 수분 함량은 2014년 55.9%에서 2019년 34.4%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019년에는 풀사료의 69%가 헤일리지로, 18%가 건초로 생산·유통됐다. 수분 함량과 상대 사료가치, 조단백질, 조회분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누는 품질 검사에서 B등급 이상인 저장 풀사료의 비율이 2018년 47%에서 2019년 75%로 늘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고용충격... 3월 도내 일시휴직 4만7000명 증가

### 고용률 58.2%로 전년대비 동일... 비임금근로자 12.8% ↑

전북도의 고용률은 58.2%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하나,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비임금근로자는 3만7,000명(12.8%) 증가하고, 임금근로자는 4만1,000명(-6.5%) 감소했기 때문으로, 향후 전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9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0.4%)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1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했으나, 여자는

3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1.0%) 감소했다.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2만1,000명(13.8%), 도소매·숙박음식점업 8,000명(5.6%), 제조업 6,000명(5.2%) 등은 증가했으나, 건설업 1만3,000명(-15.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8,000명(-8.4%) 등은 큰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건설노동자, 노인일자리 취업자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는 3만7,000명(12.8%) 증가했고, 이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3,000명(22.8%), 자영업자는 2만4,000명(10.4%)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4만1,000명(-6.5%) 감소했고, 이 중 일용근로자는 1만7,000명(-26.1%),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15.8%) 감소했다.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7,000명(100.4%) 증가한 5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7.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시간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근로자들의 무급휴가를 실시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 전북농산물, 수도권 특별 판매

### 전북농협-전북도, 유통매장서 판촉행사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난 17~19일까지 3일간 농협하나로마트(전주 및 수도권 6개점)에서 김제광활 햇감자 판매전과 16~19일까지 4일간 롯데마트(수도권 16개점), 빅마켓(6개점)에서 순창 참두릅 홍보 판매전을 개최해 2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행사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매장내 고객 안내방송을 통해 하루 일정량의 햇감자 타임세일(50%할인)을, 롯데마트 및 빅마켓에서는 소비자들이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시식행사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전북농산물을 '예담제' 우수성을 알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역농산물

판촉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앞서, 전북농협은 전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철맞은 신선한 전북농산물을 수도권 및 영·호남 지역 유통매장에 정기적으로 매월 1회~2회 판촉행사 계획했다. 지난 3월에는 삼례 딸기의 전주 하나로마트 지역농산물 통합판촉전을, 이달 4일에는 전북도청 드라이브스투 특별판촉전을 추진했다.

전북농협은 향후 5월~6월에는 롯데마트 GAP농산물 판매전, 6~7월(수박, 블루베리,복숭아), 9월(전북마트 통합행사), 10월~11월(오이,애호박), 11월~12월(사과,배,만감류) 등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